

영양군, 공직자 AI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김귀열 기자 | ⓒ 승인 2026.04.29 17:26

민·관 협력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 군민 대상 무료 교육도 병행



공직자 AI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경북)=데일리한국 김귀열 기자] 경북 영양군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직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AI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AI 기술을 공직 현장에 적극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양군AI협회가 주관하는 지역민 대상 AI 교육 과정에 공무원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해 민·관이 함께 미래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은 영양군AI협회 신치훈 전략기획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민원 대응, 법규 검토 등 실무 중심 AI 활용법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보안 관리, 생성형 AI 도구 실습 및 시연 등 공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3시간 진행된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민 대상 무료 AI 교육도 29~30일 군청 대회의실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강당에서 소상공인, 학부모,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귀열 기자 gold6830112@naver.com